

# 일단 국민의당 우세...수도권 판세 따른 전략투표가 관건

## 2野 분석 광주 초반 판세

아권의 심장인 광주 민심의 흐름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호남과 아권을 상징하는 광주 민심의 선택은 수도권의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광주의 초반 판세는 국민의당이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셀프 공천과 당부 거부 파동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상승세가 한 풀 꺾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또 더민주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에서 친문(친문재인) 성향 후보들이 대거 나서면서 '도르 문재인당'이라는 비관도 거세다.

더민주에서 호남 정치의 종속 구도를 타파하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민심의 흐름이 다시 국민의당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과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포진한 국민의당 후보군에 비해 더민주 후보군들은 대부분 정치 신인들이라는 점에서 인지도나 조직력 등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광주 더민주 모 후보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주 전만 해도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당과 거의 비슷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10%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개별 후보 지지율은 더민주의 지지율을 추월하고 있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애가 탄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대별 투표율이다. 국민의당은 투표율이 높은 5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면 더민주는 투표율이 낮은 20~3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 실제 투표에서의 격차가 더욱 벌어

## "광산 을도 오차범위 접전"

현역 많아 인지도 앞선  
국민의당 전승 기대감

김종인 파동 회복세 주춤  
더민주 "3곳 이상 박빙"  
'제1야당 강화론' 내세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에서는 광주 '전패'의 위기감이, 국민의당에서는 광주 '전승'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더민주의 유일한 우세 지역구인 광산 을에서도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맹추격하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 민심 저변에 '더민주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3번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며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광주에서의 전승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선거 초반이라는 점에서 판세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민주에서는 광산 을의 우세는 물론 서갑과 북을, 광산 갑에서 박빙 국면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선거전이 중반으로 치달으면 인지도 등에서 약세를 보였던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극적인 역전도 가능하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광주 민심의 냉랭한 평가도 국민의당에게는 부담이다.

그동안 전략적 투표에 나선 더민주가 수도권 등에서 아권의 패배가 가시화될



"광주의 자존심 되찾겠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4·13 총선 광주출마자들이 2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한 뒤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면 선거 막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공천 과정에서 혁신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광주 민심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친박-비박 '화합형 선대위' 구성 더민주 "새누리당 정권 8년 경제 실정 심판" 국민의당 "오만한 與 심판, 무능한 野 대체"

### 여야 본격 선거체제 돌입

여야는 28일 당을 선거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고 본격적인 득표전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어 김무성 대표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서청원 이인제 최고위원, 원유철 원내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새누리당은 또 선대위 발족식과 함께 전국 253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 대상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공천자 대회를 열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천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로 근심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새누리당은 단결된 힘으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에 더는 갈등과 분열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중앙

선대위원장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주재로 중앙선거대책위원장단 첫 회의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이번 총선의 성격을 "지난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포용적 성장과 더 많은 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우고 거기에 매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리는 대전총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와 충북에서 열리는 더민주 경제살리기 총북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연이어 참석했다. 선대위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합류한 진영 의원과 김진표 전 의원이 맡았고, 민생경제 이슈를 선도하고자 발족할 '경제상황실(가칭)' 책임자에는 비례대표 4번을 받은 최윤열 전 서강대 부총장이 내정됐다.

국민의당도 마포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1, 2번으로 지명한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를 공동 선

대위위원장으로 추가했다. 이로써 안철수·천정배·김영환·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의 4인 체제는 6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확대됐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 총선도 연대 없는 자신 없다는 무능한 야당을 대체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선거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애초 이번 주까지는 서울 노원병에 올린 뒤 그 이후 당의 간판으로서 수도권 등 전국 유세로 변경을 넓혀갈 예정이었지만, 당내 수도권 의원들의 요청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수도권 유세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의당 선대위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세균 공동대표,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옥중출마 강운태 선거운동 가능할까

법무부에 허용 청원서...선관위 "방송 녹화연설은 가능"

옥중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8일 강 후보 선거사무소에 따르면 강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강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31일~4월12일) 중 구속을 일시 중지해 선거운동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중지가 어렵다면 TV 토론과 방송(TV·라디오) 연설 참여, 이 또한 불가하다면 구치소 내 방송녹화·녹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청원했다.

17대 총선 당시 옥중 출마했던 박주선 후보는 구속 상태에서 구치소 내 방송녹화·녹음이 허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 후보의 옥중 선거운동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강 후보 측에서 질의를 해왔다"면서 "공직선거법상 구치소 내 후보자 연설용 방송 녹화 등은 해당 방송국 방송시설을 이용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중지를 통한 선거운동과 후보자 간 TV토론은 합법 것으로 보이지만, TV와 라디오를 통한 후보자

녹화 연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23일 구속 수감 뒤 구치소 안에서 옥중서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서신을 통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선거가 코앞인데 현행법도 아니고,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구속을 당하다니..."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한편, 강 전 시장은 산악회를 통해 유권자 수천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구속됐지만 광주 동남갑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친구 맺
-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체코 - 프라하

① 커플당 20만 마일리지 제공

전통 맥주 스파 무료 포함

클래식 프라하/체스키크롬로프 7일

EEW301\_OKM 2,180,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 호텔 : 부피크 호텔 (시내 4성급)
- 요일 : 매주 일/월
- 항공 : 체코 항공(OK항공)
-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 카를로비바리 기념 커플잔
-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② SM면세점 카드 3만원 권(커플당 1장)

전통 맥주 스파 + 고성호텔 숙박

클래식 프라하/비엔나 8일

EEW302\_AYM 2,521,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없음/선택경비 있음

- 호텔 : 부피크 호텔 (시내 4성급)
- 요일 : 매주 일/월
- 항공 : 핀에어(AV항공)
- 특전 : 미팅/샌딩 서비스
- 비엔나 음악회/ 쉐부룬 궁전 관람
- 특식 : 로브코비츠 궁 코스 요리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